

직업기대와 직업만족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대학생을 중심으로-

곽윤정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he effect of career expectation and job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among Cyber University students

Yun Jung Kwak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jo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서울소재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전공관련 직업기대와 직업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사이버대 재학생의 학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소재 한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성인학습자로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20대부터 60대까지 총 783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직업기대, 직업만족, 전공만족에 대한 개인변인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직업기대와 직업만족의 전공만족에 대한 예측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본 결과, 여성이 직업기대, 직업만족, 전공만족도 모두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된 상황에서 직업기대와 직업만족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직업기대와 직업만족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직업기대가 높을수록, 직업만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는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직업기대와 직업만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전공만족과 관련된 진로 변인을 찾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구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n their satisfaction with the major. The subjects were 937 adult learners, over 20 years of age, at one of the Cyber Universities in Seoul, Ko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yber University students had goal-oriented motivation the most, followed by learning-oriented and activity-oriented motivation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lif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der of adult learners, age, occupation, marital status, and major. Third, life satisfaction and the three types of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s positively affected the major satisfaction. Th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was the most, followed by goal-oriented, learning-oriented, and activity-oriented motivations in the same ord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dult learners' quality of life and the motivation to learn are very important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with the major.

Keywords : Adult Learner, Cyber University, Career Expectation, Job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Yun Jung Kwak(Sejong Cyber Univ.)

email: flow2003@naver.com

Received January 3, 2022

Accepted February 4, 2022

Revised January 26,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훈련의 디지털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내 사이버대학은 2001년 9개 학교로 출발한 이후 현재 총 19개 학교로 성장하였고 실제로 사이버 교육 대한 학습자의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1년 현재 국내 사이버대학 누적 학습자는 약 40 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신기술의 발전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국민 누구나 교육·훈련을 통해 인생 2모작과 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가 발표한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의 골자였다. 교육부의 발표와 같이 사이버대학 학습자들 중 상당수는 온라인 교육을 취업준비와 이직 혹은 은퇴 후 삶을 위한 진로 설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취업과 관련된 이슈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의 입장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사이버대학은 학습자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들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각 학과의 전공과 특성을 살려 전공 학생들의 욕구에 알맞게 대응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 입장에서 고려할 때 대학 진학 시 진로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학습자의 경우 자신이 속한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 상실, 낮은 성적, 고립과 소외감을 경험하며 불안, 신경증 등 각종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기도 한다[1]. 실제로 대학의 학생생활 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전공이나 진로문제, 그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1-13].

학습자가 진로를 준비하는 구직과정에서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진로와 관련된 대학생활 관련 요인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업가치관, 직업핵심역량, 취업스트레스, 취업불안, 취업준비행동, 진로목표행동, 진로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그릿, 진로준비행동, 직업기대, 직업만족 등의 진로 요인과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과의 관련에 관한 연구이다[13].

대학생활과 전공은 학습자의 진로와 직결되므로 전공

만족도는 그들의 진로의식 형성과정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11]. 전공만족도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계현과 하혜숙[2]은 전공이 가지는 사회적 소속감을 포함한 학과 만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Shin & Johnson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인지적 관점으로 판단하여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것"이라 하였다[11]. 이 외에도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자신이 소속한 전공학과가 미래의 진로와 직업 또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해와 전공 관련 학업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된다[14].

전공만족도에 대한 정의로 미루어볼 때, 진로에 대한 기대는 전공만족을 형성하는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직업기대감은 개인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나오는 미래를 위해 목표로 하는 희망직업이나 성취수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는 교육과정선택에, 장기적으로는 진로선택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10]. 종합해보면 직업기대는 전공이나 직업선택에 대해 느끼고 있는 확신 또는 잠정적 이해 정도를 보여준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5].

전공만족과 진로관련 요인들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진로장벽인식은, 진로효능감, 진로태도 성숙 및 전공만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었다[3,4]. 직업기대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과만족이 직업기대의식에 부분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2], 그리고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진로목표 활동이 늘어나고 전공만족 또한 높다는 결과 등이 확인되었다[5,8,10]. 특히 전공만족 중에서도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정 수준이 높을 때, 교과과정이 만족스러울 때 미래 직업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5,6]. 또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실무진행력, 대인관계 및 적응 역량과 같은 장래 직업에 대한 수행 능력을 크게 지각할수록 장래 직업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이며 전공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선행연구[7]는 전공만족이 직업기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학과만족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대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취업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1], 전공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12], 전공만족이 진로의식, 직업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3]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진로와 전공만족에 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장벽인식에 관한 연구[15], 사이버대 재학생과 일반대생의 전문직정체성과 전공만족도의 관련성[16]이나, 사이버대학생의 학습참여동기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7] 등에 한정되어 있어 사이버대학재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진로 관련 변인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성인학습자인 사이버대학 학생들 중 대부분은 공교육 이후 한동안 학습을 중단하였다가 편입하거나 재입학하였다[15,17]. 그들은 대부분 20대이며 직장 경험이 없는 일반 대학생과는 달리 직업 경험이 있으며 이전 학교 교육에 대한 실패 및 진로 좌절의 경험, 중·장년기 발달단계 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중이다. 이미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경험한 이들의 진로기대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 대학생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덧붙여 사이버대 재학생들은 이전의 학습경험과 달리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므로 학습 성공, 졸업 후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다[5,15,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 경험이 있는 사이버대학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기대와 전공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선행연구 결과로 예측해 볼 때, 사이버대학생의 직업기대와 전공만족도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들이 경험한 직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를 통해 전공만족도와 진로 관련 변인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직업기대와 직업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를 검증하고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진로에 대한 기대와 전공만족도 향상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직업기대, 직업만족, 전공만족도에는 개인변인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가?

둘째,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직업기대, 직업만족은 전공만족도를 예측하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서울 소재 한 사이버대에서 2021년 1, 2학기에 개설된 심리학개론 및 교양 수업에 참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8개 학부에 소속된 1003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직업 만족도 조사를 위해 현재 직업유무를 떠나 직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10명 중 10대 응답자 4명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후 총 783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lassification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331	42.3
	Female	452	57.7
Grade	Freshman	177	22.6
	Sophomore	99	12.6
	Junior	211	26.9
	Senior	274	35.0
	Part-time	22	2.8
Age	20s	278	35.5
	30s	256	32.7
	40s	159	20.3
	50s	77	9.8
	60s	13	1.7
Current Occupation	Yes	719	91.8
	No	64	8.2
Marriage	Yes	328	41.9
	No	436	55.7
	Non-response	19	2.4
Child	Yes	276	35.2
	No	496	63.3
	Non-response	11	1.4
All		783	100.0

2.2 측정도구

전공만족도는 Illinois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와 Braskamp, Wise & Henstler(1979)가 대학생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학과평가 조사지에 기반하여 하혜숙(2000)이 개발한 학과만족도 척도 중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기대 수준과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소속한 전공을 평가함으로써 순수한 전공만족도만을 묻는 문항인 일반만족요인 6개 문항과 인식만족요인 7개 문항을 택하여 총 13문항으로 전공만족도로 측정하였다[19].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직업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Harren(1979)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척도를 정채기(1992)가 번안하여 타당화

시킨 후 송유진(1995), 하혜숙(2000)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직업기대요인 중 전공관련 직업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직업인식 관련 8문항을 사용하였다[8,19]. 본 연구에서 직업기대의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직업만족은 자신이 경험한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심리상태의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김광자(2011)와 최현주(2012)의 연구를 기초로 손연송(2015)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20]. 직업만족의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측정값이 클수록 전공만족, 직업기대, 직업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 분석 절차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기대, 직업만족과 전공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를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기대, 직업만족 그리고 전공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과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여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였다. 변량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 집단 간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직업기대, 직업만족과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고 직업기대와 직업만족이 전공만족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를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M	SD	1	2	3
1. Career expectaion	4.83	1.70	-		
2. Job satisfaction	14.84	3.14	.222**	-	
3. Major satisfaction	51.00	8.24	.700**	.370**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Difference Analysis of Career expectaion and Job satisfaction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Career expectaion				Job satisfaction			
		M	SD	t	P	M	SD	t	P
Gender	Male	14.30	3.12	2.08	.00***	4.98	1.67	-4.18	.03*
	Female	15.24	3.10			4.72	1.72		
Current Occupation	No	14.69	3.21	-.40	.68	4.31	1.91	-2.53	.01*
	Yes	14.85	3.13			4.88	1.68		
Marriage	No	14.56	3.30	-2.76	.00***	4.64	1.74	-3.71	.00***
	Yes	15.19	2.90			5.09	1.64		
Child	No	14.65	3.26	-2.45	.01*	4.66	1.72	-3.75	.00***
	Yes	15.23	2.90			5.14	1.65		
Classification		M	SD	F	P	M	SD	F	P
Age	20s	14.26 ^a	3.21	5.28	.00***	4.72	1.71	3.61	.00***
	30s	15.16 ^b	3.18			4.67 ^a	1.72		
	40s	14.82	2.82			4.97	1.66		
	50s	15.87 ^c	3.09			5.36 ^b	1.58		
	60s	15.23	2.61			5.54	1.76		
Grade	1st	15.23	3.04	2.06	.083	5.01	1.74	1.58	.177
	2nd	14.58	2.81			4.77	1.74		
	3rd	15.07	3.28			4.73	1.70		
	4th	14.53	3.25			4.83	1.68		

* $p < .05$. ** $p < .01$. *** $p < .00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직업기대, 직업만족 그리고 전공만족도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직업기대와 전공만족도($r = .700, p < .001$), 직업만족과 전공만족도($r = .370, p < .001$), 직업기대와 직업만족($r = .222, p < .001$)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직업기대가 높을수록, 직업만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0.8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상관성은 위와 같이 적절한 수준이었다.

3.2 차이검증

3.2.1 직업기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기술통계, T 검정과 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모든 변인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직업경험이 있는 사이버대 학습자의 직업기대는 성별, 결혼여부, 자녀유무 그리고 연령 변인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현재 직업유무와 학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직업기대가 더 높았고, 미혼 학습자보다 기혼인 학습자의 직업기대가 더 높았고 자녀가 있는 학습자의 직업기대가 더 높았다. 연령에 따른 직업기대에서는 연령 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001 유의수준에서 20대의 직업기대가 30대, 50대보다 낮았고, 50대의 직업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a(b)(c)).

3.2.2 직업만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직업 경험이 있는 사이버대 학습자의 직업만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모든 변인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사이버대 학습자의 직업만족에서는 성별, 직업유무, 결혼여부, 그리고 자녀유무 변인에서 모두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성보다 남성이 경험한 직업만족이 더 높았고, 현재 무직인 학습자보다 직장이 있는 상태인 학습자의 직업만족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미혼인 학습자 보다 기혼인 학습자의 직업만족이 더 높았고, 자녀가 있는 학습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연령에 따른 직업만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001 유의수준에서 30대의 직업만족이 50대보다 낮았다(a(b)). 직업만족 변인에서는 학년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3.2.3 전공만족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전공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Table 4).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모든 변인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사이버대 학습자의 전공만족도에서는 성별, 결혼여부, 자녀유무, 연령 변인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전공만족도가 더 높았다. 미혼인 학습자보다 기혼인 학습자의 전공만족도 더 높았으며,

Table 4. Difference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ajor satisfaction			
		M	SD	t	P
Gender	Male	50.19	8.43	-2.36	.01*
	Female	51.59	8.06		
Current Occupation	No	50.39	9.16	-.61	.53
	Yes	51.05	8.16		
Marriage	No	50.39	8.21	-2.43	.01*
	Yes	51.85	8.20		
Child	No	50.46	8.16	-2.74	.00***
	Yes	52.14	8.23		
Classification		M	SD	F	P
Age	20s	49.94 ^a	.210	3.302	.01**
	30s	51.31	8.29		
	40s	50.97	8.12		
	50s	53.58 ^b	8.13		
	60s	52.62	7.25		
Grade	1st	51.23	8.58	.069	.991
	2nd	50.86	7.70		
	3rd	50.90	8.81		
	4th	50.83	7.9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β
Career expectaion	.653***
Job satisfaction	.226***
F	454.56***
R ²	.538
Adjusted R ²	.537

*** $p < .001$.

자녀가 있는 학습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연령에 따른 전공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20대의 전공만족도가 50대보다 낮았다(a<b). 직업유무와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도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3.3 회귀분석

직업기대와 직업만족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대 학습자의 직업기대와 직업만족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able 5).

직업기대와 직업만족은 전공만족도의 약 54%를 설명하고 있었다.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직업기대($\beta=.653, p<.001$)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직업만족은 직업기대보다 낮은 영향력($\beta=.226, p<.001$)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직업기대와 직업만족이 전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학습자의 전공 관련 진로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학과 적응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기대, 직업만족, 전공만족도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여성이 직업기대, 직업만족, 전공만족도 모두에서 남성보다 높았다.

전공만족도에서 확인한 성별 차이는 여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남학생보다 높다는 선행연구들[2,17,21]과 일치하지만 전공의 특성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와[19],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남성이 더 높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직업기대, 직업만족, 전공만족 모두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공학과에 따라 학년별 전공만족도에는 차이가 발생하였고[21], 여학생의 경우 수학 학년이 길어져도 남학생 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다[19]. 본 연구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17], 수학 학년이 길어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우 또한 확인되었다[19,23,24]. 이처럼 사이버 교육 연한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전공만족도가 저하되는 현상은 사이버대학이 당면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25].

대학생의 직업기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여학생의 직업기대가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때 직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이 직업기대와 전공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8]. 즉 직업 가치관이 높고, 희망 직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 인식이 높을수록 직업기대와 전공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직업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찾아 본 결과, 대학전공이 일치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봉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연구[9], 성격유형에 따라 직업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연구[26], 삶의 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28], 직업가치인식이 높을수록 직업기대가 높다는 연구[29] 등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선행연구 중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교육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졸업 후 직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7]는 연구는 직업기대, 직업만족과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준다.

현재 직장의 유무는 전공만족도와 직업기대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만족도에 있어서는 현재 직업이 있는 학습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유사한 연구에서 직업유무는 학업만족도나 콘텐츠 만족도, 학업성취도와 상관이 없었다[25,31]. 결혼한 학습자의 직업기대, 직업만족, 전공만족도는 미혼인 학습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있는 학습자와 없는 학습자를 비교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만족을 확인하기 위해 피험자를 현재 직업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는 피험자로 제한한 바 있다. 이러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선행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학생이면서 직업 경험이 있고 기혼 상태인 학습자는 사이버대학과 같은 평생교육기관에서만 나타나는 학습자 특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 중 78%의 학습자가 직장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2%에 해당하

는 학습자는 현재도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약 70%가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30]와도 일치한다. 또한 이 중 42%가 기혼자에 해당한다 응답한 것으로 볼 때 평생교육에 입과하는 학습자는 일반 대학생의 진로 관련 변인 또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직업기대와 직업만족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직업기대와 직업만족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직업기대가 높을수록, 직업만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는 높았는데 특히 직업기대는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기대와 전공만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학습자가 갖고 있는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또한 높았다[2,7,8]. 반대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기대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6]와 전공만족이 높은 학습자가 진로의식, 직업가치관이 높다는 연구[13]로 미루어볼 때 전공만족과 직업기대 간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공만족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 [12] 등도 본 연구에서 확인한 직업기대와 전공만족도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뒷받침해준다. 덧붙여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호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17,32], 직업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도 정적상관이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28].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사이버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직업기대와 직업만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직업기대는 전공만족도 관련변인을 탐색하는 여러 선행연구들에 비해 매우 큰 통계값을 나타내는 영향력이 큰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로에 대한 기대는 전공만족을 형성하는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검증되었다.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동기는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나 학위취득을 위한 목표지향동기였으며 목표지향동기가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로 확인되었다[17]. 성인학습자가 직장과 학업을 겸업하는 이유가 이처럼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려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이버대 학습자가 전공과 관련된 취업 기대를 높게 가질수록 전공만족이 높다는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진로지도와 직업훈련이 학습자의 취업기대감을 고취시켜 학과 만족과 증도이탈 방지에 분명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 전공만족도는 학습자의 증도이탈과 학습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22]. 사이버 대학은 이를 위해 진로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학위취득을 통해 구직이나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성인학습자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주고 전공과 연계하여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졸업생의 취업 사례를 적극 개발해야 하며 실제 취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공별 직무능력표준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진로상담을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 사이버대 학습자는 상당수가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고등교육에 재도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며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전공만족도는 진로상담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33]. 추후 사이버대 재학생의 진로발달 프로그램이나 진로상담을 계획할 때에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진로에 대한 기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요구된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배경변인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개발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직업기대가 30대, 50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는데 유독 20대가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기대가 낮은 이유가 세대에 따른 차이인지 혹은 다른 심리적 요인 때문인지를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진로 훈련과 구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한 사이버대학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 변인 중 직업기대와 직업만족 변인만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업경험이 없는 사이버대학생과의 비교 연구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진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사이버대학생 개개인의 진로 개발과 학교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J. H. Kim, C. K. Cho, "The Effect of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urity on the Career Expectation Consciousness". *Journa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vol.14, no.1, pp. 59-69, 2014.
- [2]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 no.1 pp. 7-20, 2000.
- [3] S. Y. Choi, "A Study on the Antecedents of Social Work Students' Career Decision Efficacy: Focusing on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Satisfaction from Major", *The Convergent Research Society Among Humanities, Soc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vol.6, no.10, pp. 345-353, 2016.
- [4] S. H. Park, J. H. Ahn,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Career Barrier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Competencies based on Gender, Grade, and Fields of Major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age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8, pp. 69-80, 2016.
- [5] M. Y. Hwang, H. Y. Oh, B. Y. Won, "Original Article : A study on dental hygienists' job expect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2, no. 6, pp. 1138-1147, 2011.
- [6] D. Y. Eum, "The Effects of Physical Education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on Their Expectation of Future Career".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3, no. 2, pp. 43-50, 2007.
- [7] N. Y. Kim, "A Study on the Job Value, Core Competencies, Job Expectation,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Exhibition-Convention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Trade Fairs and Exhibition Studies*, vol. 11, no. 3, pp. 95-116, 2016.
- [8] J. H. Kim, "A Study of the Satisfaction with Majors on the Basis of the Future Job Expectations of the Specialists in Physical Education of University", *Master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6.
- [9] C. D. Lee, Y. Park, "Exploring Variables Affecting College Graduates' Job Satisfaction : An Application of Sparse Group Lasso Model",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21, no. 4, pp. 1069-1097, 2020.
- [10] K. S. Yoo, "Influences of Career Barriers and Expectation Toward Future Career on Career Goal Activities of Women with Career Discontinuity", *Master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3.
- [11] L. Y. Choi, "A study on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focused the students majoring", *Journal of Hotel and Tourism*, vol.25, no.1, pp. 393-416, 2021.
- [12] H. Y. Kang, "The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vol. 22, no. 4, pp. 109-121, 2020.
- [13] Y. M. Choi, H. N. Yu, "A Mutual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Motive in Volunteer Activity Linked with Majors,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ion Values, the Student Majoring in Golf", *Journal of Golf Studies*, vol. 14, no. 3, pp. 241-251, 2020.
- [14] J. Y. Yoon, "Study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Juni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9, no.23 pp. 111-132, 2014.
- [15] J. H. Lee, Y. J. Gwak, "Perception on Career Barriers among Cyber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0, pp. 46-54, 2018.
- [16] E. H. Choi, "Factors Influencing on the Field Education Outcomes and Professional Identity of Social Welfare in Cyber University and Ordinary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12, pp. 475-485, 2011.
- [17] Y. J. Gwak, J. H. Lee, "The effect of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among Cyber University students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5, pp. 285-295, 2018.
- [18] H. Y. Lim, S. M. Lee, "A Study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among Adult Social Work Students of a Cyber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10, pp. 403-415, 2014.
- [19] J. S. Nam, "The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 Psychological Trait Variables and University Life Trait Variabl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 [20] S. W. Song, "The Study on the Effects of the Emotional Labor, Emotional Dissonance, Job Satisfaction of Beauty Services Employees",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2015
- [21] S. W. KIM, "Longitudinal study on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selection method based on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11, pp. 189-209, 2014.
- [22] J. Y. Ju, A. K. Kang, E. Lim, "A Meta-Analysis on the Learning Satisfaction for Cybe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 12, no. 2, pp. 145-170, 2016.
- [23] Y. J. Cha, Relationship of the typ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in lifelong education to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in wome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1.

- [24] M. J. Woo, "The Influence of Learn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Learning Effect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3, pp. 213~219, 2011.
- [25] S. H. Lee, "E-Learning Satisfaction- Is It Different from Learning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9, no. 6, pp. 1830-1837, 2008.
- [26] S. S. Kw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Type, Major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Desired job position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vol. 38, no. 2, 87-98, 2016.
- [27] W. S. Lee, D. B. JU,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Occupational Satisfaction of College Graduation Youth Entrepreneur", 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 vol. 24, no. 4, pp.139-161 Nov, 2016.
- [28] S. S. Kim, J. T. Kim, "Influence of Expected Occupational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of Pre-service Sport Instructo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38, pp. 701-708, 2009.
- [29] W. K. Kim, S. Y. Park, "The Relationship among Motivation for the Certificate Acquisition, Occupational Value and Expected Occupational Satisfaction of Prospective Sports Instructor", Korea Sport Society, vol. 17, no. 2, pp. 229-240. 2019.
- [30] H. S. Yun, "Research Trend and Subject of Research Upon Online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vol.8, no.2 pp. 169-187, 2014.
- [31] Y. J. Joo, N. Y. Yoo, H. N. Seol, "Multi-group Analysis of Employment Status in Isolation, Interaction, Content Satisfaction, Achievement and Persistence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5 pp. 525-540, 2012.
- [32] J. S. Jun, T. J. Kim, "The Moderation Effect of the Participation Satisfaction of Lifelong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Korean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search", vol. 8, no. 2, pp. 55-71, 2013.
- [33] Y. K. Au, "The relation between the career counseling activity,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ation :Regulating effect of decision-making criterion for maj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2, no. 5, pp. 1793-1811, 2011.

곽 윤 정(Yun Jung Kwak)

[정회원]



- 1997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6월 ~ 현재 :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학, 사이버교육, 상담심리